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와 인문교육의 역할

이 용 욱(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목 차 〉

1. 서론
2. 초연결사회와 홀롭티시즘
3.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
4. 인문교육의 진심: 사물의 윤리성과 상생과 공존의 이중구동(異中求同)
   4.1. 사물의 윤리성
   4.2. 상생과 공존의 이중구동(異中求同)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윤리성의 회복과 정립이 모두 인문교육의 역할이라는 전제하에 초연결사회의 인간-행위자인 홀롭티시즘 세대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규명하여 인문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인문교육의 진심을 통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물질과 정신은 모순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연동과 보완의 관계이다. 초연결사회의 기술혁명은 네트워크 혁명이며, 물질과 정신의 '연결'은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구현하였다. 홀롭티시즘과 파놉티시즘이 공존하고 길항 작용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는 초연결사회가 초래한 새로운 일상과 사회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공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는(엄밀하게 구분하면 탈유교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일상-공간의 유교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역미러링이다. 문제는 이 역미러링이 보여주고 있는 혐오와 증오가 단순히 유교사상에 대한 반발에 머물지 않고 네트워크-공간 전체의 윤리기제로 확장되면서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내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면 그것을 호명한 기제는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기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유교이데올로기와 탈유교이데올로기 모두,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은 인문교육의 내용종목이다. 초연결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인문교육이 강조되고 그 비중이 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대 연결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은 학교와 언론이었다. 학교는 근대성을 학습하는 공간이고 언론은 근대를 호출하고 추동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러나 네트워크-공간에서 학교의 역할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접속한 커뮤니티가 대신하고, 언론은 유투브나 페이스북같은 개인미디어로 대체되었다. 학교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네트워크-공간의 냉소는 근대에 대한 배척이며, 근대성에 기반한 인문교육에 대한 허무이다. 따라서 냉소와 배척과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문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초연결사회의 지식공동체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전통적 유교사상을 네트워크-공간과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변형·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사물의 윤리성이 인문교육의 진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에서는 인간-행위자의 윤리만큼이나 비인간-행위자의 윤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윤리성을 상실한다면 네트워크의 연결성으로 인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 속에서 같음을 추구하는 이중구동(異中求同)이야말로 차이를 인정

www.kci.go.kr

하고 “나는 맞고, 너는 그르다”의 배타적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공간의 윤리적 자세이다.

초연결사회에서 인문교육의 역할은 분명하다. 인간성과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유교적 전통을 네트워크-공간에 접목시켜 상생과 공존의 휴머니즘을 발현시켜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인문교육의 진심을 규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인문교육,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 홀롭티시즘, 사물의 윤리성, 탈유교이데올로기

1. 서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매체변천사에서 디지털미디어로 통칭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기기의 등장은 정보와 지식의 구조(생산과 소비, 유통을 포함한)에 문자의 발명과 필적하는 포괄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디지털미디어가 향후 지식생태계에 초래할 파급력과 변화의 규모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변화만으로도 수천년을 지탱해온 문자중심사회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식과 정보를 구성하는 단위가 문자로 표상되는 아날로그에서 비트로 코드화된 디지털로 바뀌고, 인간만이 갖고 있던 인지능력을 기계도 갖추게 됨으로써 21세기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1]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이론을 전개시켰는데

1)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아젠다 중 하나로 논의된 초연결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한 상시 접속과 연결 및 조직의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관한 폭넓은 접근 가능성,

www.kci.go.kr

“여러 기계적 장치만 보장된다면 사물도 사람과 대등한 사회적 연결망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NT: Actor Network Theory)이 대표적이다. 사물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단순한 도구의 역할에서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근대 연결사회의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며 사물도 윤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2] 근대성이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서 출발하였다면 근대의 종언에 즈음하여 사물의 윤리성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 것이다. 초연결사회는 네트워크-공간[3]의 확장을 촉진시키는데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가 존재론적으로 뒤얽힌 네트워크-공간에서 기술은 인간의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는 단순한 도구나 보철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기술은 우리에게 특정한 유형의 사고, 행동, 가치를 유도할 뿐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행동이나 상상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제약 조건이기도 하다.[4]

그동안 우리는 기술을 숙련의 관점에서 ‘분업’과 ‘전문’의 영역으로 바라보았지만, 진입장벽이 문자 수준으로 낮아진 정보기술(IT)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일상에 가까워졌다. 더구나 비인간-행위자가 학습과 숙련을 스스로 수행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기술을 ‘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발전하고 있다. 총이나 칼도 윤리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도구에 불과해 사용자인 인간 주체의 윤리성이 강조됐다면 디지털미디어는 비인간-행위자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연결 대상의 확대, 상호작용, 풍부한 데이터와 정보, 상시 기록과 보관을 특징으로 한다. 즉, 초연결사회는 사람과 사물, 자연 그리고 사이버 세계가 네트워크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환경을 의미한다.(최민석 외,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14면.)

2) 1973년 오늘날 인터넷의 통신규약(TCP/IP)을 설계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 구글 부회장은 최근 프랜신 버먼 렌설리어공대 교수와 함께 쓴 논문에서 “사물인터넷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모든 사물이 소통…인간 위주 넘어선 새로운 인터넷 윤리 필요’, 한겨레 인터넷판 2017년 5월 15일자 기사 부분 인용.)

3) 네트워크-공간은 사이버스페이스를 대체하는 용어로 ‘연결’과 ‘물성’을 강조한다.

4)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견」, 「과학철학」, 『HORIZON』, 2020년 1월 23일자.(https://horizon.kias.re.kr/)

www.kci.go.kr

이며 주체이기 때문에 사물의 윤리적 측면도 함께 중요해진 것이다. 비인간-행위자의 윤리성은 사물과 연결된 인간-행위자의 윤리성과 '거울효과'를 갖는다.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에서는 윤리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윤리성의 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윤리성의 회복과 정립이 모두 인문교육의 역할이라는 전제하에 초연결사회의 인간-행위자인 홀롭티시즘 세대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규명하여 인문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인문교육의 진심을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

2. 초연결사회와 홀롭티시즘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화의 가장 큰 효과는 '개인 중심'사회, 즉 개인화의 과정이자 새로운 형태의 소속과 공동체의 출현이라고 했다.[5] 초연결사회의 특성인 '연결', '접근', '접속'이 1인 미디어인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포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스 미디어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정과 학교로 대표되는 사회화가 SNS와 커뮤니티 중심의 개인화로 변화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위계와 경계가 견고했던 지식생태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화를 "개인을 중심으로 한 관점의 확장과 판단의 확산"으로 이해하면, "개인이 보는 전체"라는 의미의 <홀롭티시즘> 개념은 초연결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이다.

홀롭티시즘은 파리의 겹눈, 그러니까 수백 개의 홑눈이 겹쳐져 붙어 있는 복안(複眼) 구조를 뜻하는 홀롭틱(Holoptic)에서 따왔다. 평범한 일개 개인이라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수천, 수만 개의 겹눈을 지닌 사람이 되어 전체 상

5) 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78면.

www.kci.go.kr

황을 훑어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됐다는 것이다. 홀롭티시즘이란 용어를 구체화한 장 프랑수와 누벨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것은 어떤 조직(혹은 그룹)내의 행위자들이 조직(혹은 그룹)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든 혹은 온라인 공간이든-의 전체를 마치 하나의 개체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홀롭틱한(holoptical) 공간은 각각의 참여자들이 '전체'를 생생하게 지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각각의 행위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덕분에 그/그녀의 행동을 조율하고 자신을 다른 이들의 움직임과 조화시키기 위해 전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개인과 집합 사이에는 마치 거울처럼 끊임없는 왕복 여행, 되먹임 고리가 존재한다. …개인과 전체 사이의 연결하는 홀롭티시즘은 행위자들에게 주권적이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체를 위해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수평적인 층에서의 명료함(조직이나 그룹 내의 모든 참여자들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전체'와의 수직적인 소통도 존재한다.[6]

전명산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화를 "국가에서 마을로의" 이동이라 규정짓고 피지배 계급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같은 속도의 미디어를 사용하는[7]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출현했다고 보았다. 바로 이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홀롭티시즘의 행위 주체인 것이다.

홀롭티시즘 개념은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파놉티콘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파놉티콘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1791년 제안한 원형 감옥을 의미하며 '모든 것을 다 본다'라는 의미이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

---

6) 홀롭티시즘의 정의에 대한 해석은 "The Transitioner"라는 글을 영문으로 번역한 프랭크 스펜서의 글을 전명산이 재번역한 것이다.(전명산, 「홀롭티시즘 세대가 온다」, 『문화과학』 62호, 문화과학사, 2010, 207-208면.)

7) 전명산, 『국가에서 마을로』, 갈무리, 2014, 171면.

www.kci.go.kr

서 벤담의 파놉티콘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 고찰하였다. 푸코에게 있어서 파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감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8] "개인이 보는 전체"와 "집단이 보는 개인"은 본질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가 집단에 있는가에서 비롯된 권력의 중심이동이다. 근대의 권력이 소수의 견고한 집단에 있었다면 탈근대의 권력은 다수의 네트워크화된 개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공간을 홀롭티시즘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홀롭티시즘과 파놉티시즘이 길항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행위자는 비인간-행위자를 사용해 홀로티시즘을 구현했지만, 역으로 일상의 대부분을 비인간-행위자에게 의지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파놉티콘의 감시체제에 편입한다. 대표적인 비인간-행위자인 스마트폰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동시에 스마트폰이 인간의 일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상기해 보면 홀롭티시즘과 파놉티시즘의 길항 관계는 분명해진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전혀 다른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9] 낙관적 전망은 홀롭티시즘을 과신한 것이고, 초연결이 빚은 정보 홍수가 개인을 무력화하고 소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10] 지적은 파놉티시즘에 매몰된 진단이다. 초연결의 핵심은 권력의

8) 푸코의 파놉티콘은 현재 정보화 시대의 '전자 감시'와 매우 흡사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 결재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다. 푸코에게 파놉티콘은 근대 "권력"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장치다. 파놉티콘을 통해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파놉티콘에서 고찰한 푸코의 권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350면.

9) 전명산, 『국가에서 마을로』, 갈무리, 2014, 186면.

10) 이도흠, 「4차 산업혁명: 문학의 변화와 지향점」, 『한국언어문학』 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8, 58면.

www.kci.go.kr

이동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을, 집단이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충돌이다. 개인은 전체를 볼 수 있다 착각하고, 집단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 과신한다. 개인과 집단의 권력의지가 충돌하면서도 길항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초연결사회의 연결고리가 국가나 학교, 군대 같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연결망이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같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개인과 집단에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개인들은 집단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平(평평할 평)에, 집단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水(물 수)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이중 의미 나선 구조는 홀롭티시즘과 파놉티시즘의 길항 관계를 유지해 주는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기존 연결사회의 국가연결성은 초연결성과 양극의 대조를 이룬다. 국가연결성은 단일의 권력중심이 분명한 피라미드 위계구조를 가지는 성형망 혹은 수형망(star net or tree net) 혹은 수목형(arborescent model)의 네트워크를 가진다. 반면에 초연결성은 단일의 권력중심이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라미드 위계구조를 가질 수 없는 격자망(lattice net or mesh net) 혹은 리좀형(rhizome model)의 네트워크를 가진다.[11]

[그림 1]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네트워크-공간의 리좀 구조는 수동적 정보 소비자를 적극적인 정보 사용

11) 박지웅, 「초연결사회 이전의 기존 연결사회의 기원과 사회성격」, 『사회경제평론』 60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26면.

www.kci.go.kr

자로 강화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네트 사용자는 자신이 전달할 정보의 내용과 전달 시간, 전달 의도, 전달 대상을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달받을 정보도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네트 사용자는 적극적 개입과 참여로 스스로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창출하는 창조적 주체로 설 가능성을 갖고 있다.[12] 바로 이점이 네트워크-공간에 최적화된 인문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다.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물질혁명은 정신혁명으로 형질전환되고 있다. 기술혁명의 발전과정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데 첫 번째 패턴은 기술혁명이 네트워크 혁명을 수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 패턴은 네트워크 혁명이 물질의 혁명에서 정신의 혁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물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재화와 서비스라는 상품의 범주라면, 정신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인간의 관심을 충족하는 정보, 지식, 과학, 기술, 문화, 교육, 법, 제도 등과 같은 정보의 범주이다.[13] 물질과 정신은 모순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연동과 보완의 관계이다. 초연결사회의 기술혁명은 네트워크 혁명이며, 물질과 정신의 '연결'은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구현하였다. 홀롭티시즘과 파놉티시즘이 공존하고 길항 작용하는 초연결사회가 초래한 새로운 일상과 사회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공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3.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

공간의 의미는 공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있다. 네트워크-공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간

12) 이호규, 「이동전화의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 172면.
13) 박지웅, 위의 논문, 28-29면.

www.kci.go.kr

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네트워크-공간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세 단계로 발전해 왔다.

	기술	사회구조	키워드	태도
1단계	PC통신	사이버스페이스	익명, 일탈	유희(遊戱)
2단계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정보, 검색	유용(有用)
3단계	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	일상, 관계	유사(類似)

일상-공간과 네트워크-공간의 관계 설정에서 1단계는 두 공간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실명과 익명의 경계에서 인간-행위자는 유희적 태도를 갖는다. 2단계에서는 여전히 두 공간은 구분되지만 네트워크-공간에 대한 태도는 유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용으로 발전한다. 정보검색과 지식공유는 지식생태계의 중심축을 일상-공간에서 네트워크-공간으로 바꿔 놓았다. 3단계는 개인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1인 미디어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일상-공간과 네트워크-공간은 구분되지 않게 되고, 인간-행위자는 네트워크-공간을 현실로 인지하게 된다. 현실과 유사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2단계까지는 일상-공간과 네트워크-공간 사이에는 심리적 거리가 존재했고, 공간을 '이동'한다는 자각이 있었지만, 초연결사회에 접어들면 인간의 육체가 미디어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공간과 공간 사이의 틈이 메워져 이동은 '이동성(mobilities)'으로 전환된다.[14] 네트워크-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이며, 네

14)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Mobility)는 이동성(移動性)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이동과정의 수월성 내지는 편의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동이란 주로 사람의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고 화물이나 정보의 이동은 운송 또는 전송 등의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모빌리티스(mobilities)'라는 개념은 사람, 화물, 정보 등의 이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존 어리는 '모빌리티스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 아이디어, 정보, 사물의 이동을 수반하고 유발하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실천이자 이데올로기이며 인간의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이자 역량으로 현 시대의 새로운 인간유형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자본'이라

www.kci.go.kr

트워크-공간에서의 이동성은 공간적 전환의 확장에서 비롯된 '유사이동'이다. 이동성은 물리적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 행동과 그 결과인 '실천'이고, '이데올로기'이며 '권리'이고 '자본'이다. 초연결사회의 특징인 연결, 접속, 접근은 모두 이동성에 기반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주체-공간-사물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결사회에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초연결사회의 일상공간인 네트워크-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해석학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피에르 레비의 '집단지성'이나 장 프랑수와 누벨의 '홀롭티시즘'처럼 네트워크화된 개인(근대의 집단의 단위로서의 주체와는 다른)들이 출현함으로써 새로운 담론과 사회적 실천을 생산해낸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개방성, 유동성, 혼성성, 호환성을 특징으로 하는 초현실사회가 궁극적으로 무질서의 상황을 초래하며, 이 무질서는 사회 내 주체들에 '진정성 상실의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15]

'생산'과 '상실'이라는 상반된 입장은 결국 네트워크-공간의 지배이데올로기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네트워크-공간이 일상-공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위계적 입장을 취하면 지배이데올로기 역시 일상-공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트워크-공간이 일상-공간과 별개의 사회적 공간이라는 입장은 독자적인 지배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김문조는 네트워크-공간이 일상-공간의 영향 하에 놓여 있다는 위계적 입장에서 진정성의 상실을 논한 것이고,[16] 장 프랑수와 누벨은 네트워크-공

고 정의한다.(윤신희 · 노시학, 「새로운 모빌리티스 개념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15, 492-495면.)

15) 부정적인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는 김문조로 그는 초복잡계의 융합문명이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혼돈(Disorder), 단절(Disconnect), 방치(Discard)를 의미하는 3Ds라는 난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또 융합문명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도 문제시되며, 문명의 사각지대에 초래되는 자원과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들은 불화(Dissonance), 격차(Devide), 추방(Displacement)이라는 또 다른 3Ds 난제를 낳을 것으로 예측하였다.(김문조,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2013.)

16) 김문조가 초연결사회의 특징을 전일적 총체성이라고 규정하고, 일정한 지도자나

www.kci.go.kr

간이 일상-공간과 별개의 담론 생산의 사회적 공간임을 천명한 것이다.

정주의 일상-공간과 이동의 네트워크-공간이 기술혁명으로 그 거리가 소멸되고 수평적 공간으로 유사(類似)되면서 공간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음에는 상위공간의 이데올로기가 하위공간에 덮어 쓰였다가, 점차 하위공간의 자생적인 이데올로기가 발전하게 되고(이때 자생적 이데올로기는 상위공간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에는 상위와 하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두 공간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네트워크-공간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자생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으며, 그 자생성의 출발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근대담론에 대한 공격 혹은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한국의 근대담론은 중세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유교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근대지배이데올로기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은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국가와 민족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식된 근대성은 결국 중세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과정 없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중세지배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유교(儒敎)는 극복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박정희의 후진적 근대주의는 허례허식이라는 미명 하에 관혼상제의 유교적 형식들을 간소화하였지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정치공학에 입각한 지역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전근대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였다. 유교적 형식은 청산되었을지 몰라도 유교적 내용은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강력한 지배이데올기로 작용한 것이다. 한국 근대성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한 유교는 유교적 사상전통이나 양반들의 유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내면화된 윤리로서의 유교적 전통이다.[17] 1970년대 고도성장기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시골

세력을 중심으로 사회적 국가적 행위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사회, 혹은 '네트워크화된 소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합체'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 것은 두 공간의 위계를 전제로 한 진술이다.(김문조,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2013, 242면.)

17)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와 인간적 이상으로

www.kci.go.kr

에서 상경해 구로공단에 취업하여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을 묵묵히 감내했던 여공들,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고시에 매달렸던 가난한 수재들은 모두 남존여비(男尊女卑), 상명하복(上命下服), 입신양명(立身揚名),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사상이 체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성의 고유한 동학이라 규정할 수 있는 유교 전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 내지 "문화적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 세계긍정과 현실적응을 향한 유교적인 윤리적 지향은 전근대적인 사회관계 안에서는 개인들에게 위계적 사회질서에 대한 절대적 순응과 전통과 관습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에 대한 도덕적 강제로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베버의 지적처럼 유교사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본주의적 근대사회를 '창조'(schaffen)해 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윤리적 지향이 적어도 강제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압력 속에서라면 그 근대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화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베버가 이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평가한 유교사회의 경제적 복리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그것이고, 나아가 물질적 재화에 대한 매우 강렬한 공리주의적, 실용주의적 태도가 그러하며, 유교적 사회성원 일반의 물질주의적 윤리적 지향이 그렇다.[18]

박정희 정권의 뒤를 이어 한국정치를 지배했던 군부독재에 저항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역시 선민(選民)의식과 "학생들이 민중의 목소리이자 진정한 대변자를 자임한 것은 지식인에 대한 유교적인 관념 때문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 학생운동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문화적 조건은 "지식인의 전통적 역할에 근거한 실천양식, 즉 사회비판이라

서의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2014, 88면.

18)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와 인간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2014, 104면.

www.kci.go.kr

는 오랜 지식인 전통"이었다.[19]

그러나 근대라는 연결사회에서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유교는 초연결사회의 네트워크-공간에서 급속도로 해체된다. 네트워크-공간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386세대를 정점으로 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일상화는 유교의 핵심적 도덕지침인 삼강오륜이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0]

삼강오륜은 이미 견고하게 확립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체제 하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임의적이며 유연하고 탈중심적인 네트워크-공간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는(엄밀하게 구분하면 탈유교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일상-공간의 유교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역미러링이다.[21] 문제는 이 역미러링이 보여주고 있는 혐오와 증오가 단순히 유교사상에 대한 반발에 머물지 않고 네트워크-공간 전체의 윤리기제로 확장되면서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22] 내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면 그것을 호명한 기제는

---

19) 이남희, 『민중 만들기: 한국 민주화 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248-385면(부분 요약).

20) 삼강(三綱)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이며, 오륜은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다.

21) 본래 미러링이라는 말 자체는 웹 콘텐츠 자동 백업, 장치를 다른 디스플레이에 표현하는 시스템, 심리학 용어 중 무의식적 모방 행위인 복제의 동음이의어이다. 그러다 네트워크-공간의 일부 급진적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나 <워마드>가 남성들에게 받은 대로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역미러링은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행위'를 뜻한다.

22) 저널리스트 카롤린 엠케는 저서 『혐오사회』에서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기에 '혐오'를 확산시키는 이들은 스스로가 '혐오'하는 자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선량하고 도덕적인 타인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정부와 시민들이 변화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혐오'의 가속화는 막기 힘들지도 모른다.(이승헌, 「혐오와 증오는 훈련되고 양성된다」, 오마이뉴스 2020년 1월 2일판, 부분인용.)

www.kci.go.kr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유희로 시작된 '충(蟲)'의 기호학이 맘충, 진지충, 틀딱충, 급식충, 설명충, 일베충으로 번져나가면서 혐오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한남과 김치녀는 남녀 간 갈등을 이성에 대한 증오의 수준으로 격화시켰다.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되는데, 네트워크-공간이 그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동성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사회는 인접지역에서 항상 유지되고 연결되던 공동체적 네트워크 집단을 점점 약화시키는 반면 더 먼 거리로의 네트워크 연결성을 확대시켜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화되어 넓게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유지를 위한 대면 만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모빌리티스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넓게 흩어져 존재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연결성과 유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상하 위계적 관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교류와 연결의 장, 참여의 장으로 네트워크를 개념화하고 있다.[23]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과 태극기집회를 통해 네트워크-공간의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일상-공간으로 넘쳐 흐르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했고 목도하고 있다. 이제 상위와 하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두 공간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서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기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유교이데올로기와 탈유교이데올로기 모두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은 인문교육의 내용종목이다. 초연결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인문교육이 강조되고 그 비중이 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23) 윤신희 · 노시학, 「새로운 모빌리티스 개념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15, 496면.

www.kci.go.kr

4. 인문교육의 진심: 사물의 윤리성과 상생과 공존의 이중구동(異中求同)

위계나 권위가 유교적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초연결사회는 탈유교적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계와 권위가 물처럼 자연스러워 인식하지 못할 뿐 네트워크-공간의 수평은 수직과 맞닿아있다. 네트워크-공간에서도 지배와 피지배, 중심과 주변이라는 근대적 범주가 엄연히 작동한다. 다만 차이는 지배와 중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근대 연결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은 학교와 언론이었다. 학교는 근대성을 학습하는 공간이고 언론은 근대를 호출하고 추동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러나 네트워크-공간에서 학교의 역할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접속한 커뮤니티가 대신하고, 언론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개인미디어로 대체되었다. 학교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네트워크-공간의 냉소는 근대에 대한 배척이며, 근대성에 기반한 인문교육에 대한 허무이다. 따라서 냉소와 배척과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문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초연결사회의 지식공동체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전통적 유교사상을 네트워크-공간과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변형·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이광세는 어떤 사회분야나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도 자기의 역할, 의무 및 책임을 슬기롭게 맡아서 하려면 스스로의 깨달음 즉 도덕적 자각이 있어야 하며, 이런 민주사상을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복례와 자임, 자득 같은 개념에서 공명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24] 피교육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도덕적 자각이야말로 인문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연결사회의 인문교육은 피교육자에게 자율과 자성을 부여하는 대

24) 극기복례(克己復禮)는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르는 것이며, 자임(自任)은 임무를 자기가 스스로 맡는 것이고, 자득(自得)은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다.(이광세, 「근대화, 근대성 그리고 유교」, 『철학과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7, 225면.)

www.kci.go.kr

신 학습과 평가만을 강제하였고,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이고 경쟁적인 제도권 교육 시스템은 피교육자가 스스로 깨닫게 할 만한 학습의 여유를 갖기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 이데올로기 현상은 일상-공간의 인문교육이 불구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반동 작용이다. 그렇다고 일상-공간의 인문교육을 강화하기에는 제도권 교육시스템은 아직 견고하며, 네트워크-공간의 교육시스템은 아직 미미하다. 물론 초연결사회가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메타컨텍스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조만간 이루어질 과업이지만, 그 전에 지식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문교육의 진심을 찾아내고 구체화하는 일이다. '사물의 윤리성'과 '이중구동'은 그 진심 중의 일부이다.

4.1. 사물의 윤리성

연결사회를 초래한 기술혁신은 이미 인간과 사물의 경계를 허물고 말았다. 기술에 의해 사물도 인간처럼 똑같은 진화과정을 겪는다. 이제 사물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실행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가 된다. 더이상 사물은 이전의 자연처럼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수동적인 매개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며 능동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는 더는 인간/사물 혹은 주체 객체와 같은 이원론적 구도를 가지지 않는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즉 인간중심의 사고에 벗어나면서 인간에게 초연결성이라는 자유를 부여한 셈이다.[25]

초연결성이라는 자유가 인간을 네트워크-공간에서 해방시킬지 구속할지의 여부는 사물이 윤리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맞닿아있다.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혁신이 윤리와 도덕의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기술에 대한 신뢰는 물신화와 다름없게 된다.

---

25) 박지웅, 「초연결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기원과 성격」, 『사회경제평론』 57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279면.

www.kci.go.kr

빅데이터가 인간실존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빅데이터가 인간이 세상을 보는 관점 즉 가치판단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가 인간의 가치관에 관여하는 과정은 이러하다. 무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 사진, 인적정보를 기꺼이 꺼내놓는다. 인간이 검색창 일면에 뜬 기사나 광고에 대해 큰 고민 없이 클릭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빅데이터는 대중의 선택을 받았거나 나의 반복적인 선택을 받은 정보를 다시 일면의 기사나 광고로 피드백 함으로써 문화를 형성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개인의 지성보다 우월하다 여겨지는 빅데이터의 판단을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인다. 결국 빅데이터는 친절과 편리를 대가로 인간의 선택권을 가져가고 인간은 시간과 효율을 선물 받으며 빅데이터를 신뢰해가는 것이다.[26]

물론 반대의 견해도 있다. 고대 아테네의 경제시스템이 노예제사회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철학과 예술을 논할 수 있었듯이, 의사결정의 수고가 덜어진다면 인간은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틀에 박힌 가정도 정확하지 않으며 인간 대신 누군가가 선택을 대신해준다는 것은 인간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은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고통을 가져오며 너무 많은 선택은 뇌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정보의 홍수와 데이터의 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인간의 정치적 선택은 더욱더 괴롭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다양한 대안을 찾다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자유가 아닌 인공지능의 편리함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사소한 결정이나 정치인들의 어려운 결정을 AI가 대신해준다면, 인간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갖게 되고 지적인 자원 확보와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행복을 느끼게 된다.[27]

---

26) 권순영, 「미래사회의 교육 가치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53면.

27) 박영숙·Goertzel, B., 『인공지능 혁명 2030』, 더블북, 2016, 35면.

www.kci.go.kr

그러나 이 견해 역시 전제는 AI가 인간을 위한 인간다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고도의 윤리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자기학습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고', 인간에게는 낯선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인간이 하는 사고', '인간의 사고를 대리 실행하는 기계의 사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고'라는 세 유형으로 사고하게 된다.[28] 만약 세 번째 유형의 사고가 인간 중심의 윤리적 측면은 간과한 채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디스토피아라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계에 의해 파멸로 인도되는 것이다.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울트론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피조물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멸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울트론의 논리는 두 가지 명제가 착종되어 있다. 인류의 진보라는 문제와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가 결합함으로써,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협하는(멸종에 가까운) 위기를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 인간은 스스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적으로 탄생시킬 것이고, 그것이 실패한다면 자연의 선택에 따라 멸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29]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멸종되어야 한다는 울트론의 판단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윤리적 기준이 삭제된 맹목적 사고에 불과하다.

2017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인공지능 연구 지침,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a AI Principles)'은 사물의 윤리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계적인 과학자 수백 명이 동의한 이 합의를 보면, 다수에게 이로움이 돌아갈 수 있고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인간이 인공지능체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도덕적 함의를

28) 권순영, 앞의 논문, 2018, 56면.
29) 심우일, 「인간 존재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묻다-조스 웨던 감독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브런치(https://brunch.co.kr/@fola16/13), 2015.

www.kci.go.kr

이해한 관계자에 의해 시스템이 사용되고, 실패와 문제가 생길 시에는 밝히고 인권기구의 감사를 받아들이며, 개인의 자유와 정보를 보호하고 사회를 전복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해 얻어진 경제적 이득과 자산을 인류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널리 공유되어야 함을 인공지능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 및 가치 덕목으로 세우고 있다.[30] '기술 윤리', '연구 윤리'를 세우는 지침들은 있었지만, 미래기술이 일으키는 변화의 속도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런 사물의 윤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권종이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도 사물의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 첫째 스마트 기술의 구현 주체들인 기술공학 종사자들에 대한 인문융합적 혹은 유교적 인륜과 의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과정 구성, 둘째 스마트 기술의 구현 과정에서 자율기계, 만물지능인터넷 등의 설계에 인륜 도덕을 체화하여 인간과 상호관계가 가능한 시스템 설계와 관리방법의 연구 개발, 셋째 자율기계 등의 제품화 과정에 인륜도덕지수의 규격화, 넷째 자율기계의 인륜도덕지수의 검사필 제도설치 등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31] 인륜도덕지수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이 관건이기는 하나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표본 집단이 충분하고 질문과 답변이 가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다.

사물의 윤리성이 인문교육의 진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에서는 인간-행위자의 윤리만큼이나 비인간-행위자의 윤리도 중요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윤리성을 상실한다면 네트워크의 연결성으로 인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30) 아실로만 인공지능 원칙의 원문은 https://futureoflife.org/ai-principles/에서 열람할 수 있다.(권순영, 앞의 논문, 2018, 68면. 재인용.)

31) 유권종, 「초연결사회와 유교적 진실의 재구성」, 『공자학』 36호, 한국공자학회, 2018, 180면.

www.kci.go.kr

4.2. 상생과 공존의 이중구동(異中求同)

디지털 시대까지 컴퓨터와 인터넷은 인간의 주도성에 의해 시스템이 돌아갔지만, 사물인터넷에서는 인간의 주도성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의 연결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제 세계는 '센서가 달린 사물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대한 신경계'로 파악될 수 있다.[32] 중요한 것은 구분과 위계가 아니라 인간-행위자와 인간-행위자,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 비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 사이에 공존과 상생이다

공자의 삼강오륜이 네트워크-공간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근대적인 구분과 위계, 순응의 권력적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효-열(忠孝烈)의 삼강은 수직적 연결사회의 쇠퇴와 함께 공허해졌고,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라는 견고한 계급구조가 만들어낸 오륜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에서 설 자리가 없다.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 흐름이 자연스러워 위계를 인지할 수 없는 네트워크-공간에서 선명한 권력 관계는 공간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며, 직관과 연상을 할 수 있고, 질문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반면에 기계는 논리를 가진 존재이며, 추론과 연산을 행할 수 있고, 답변하는 능력이 있다. 초연결사회의 핵심은 인간과 기계가 플랫폼을 통해 연결, 접속, 접근의 자유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감정을 갖고 있으며 그 인간다운 감정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처음 공식화한 것이 맹자의 사단(四端)이다. 사단은 본래 유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선설을 내세우며 이것을 사단(선을 싹틔우는 4개의 단서, 실마리)인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나누었다.

---

32) 전숙경, 「초연결사회의 인간 이해와 교육의 방향성 탐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권 2호, 한독교육학회, 2016, 59면.

www.kci.go.kr

측은지심(惻隱之心)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여기에 더해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을 통틀어 일컫는 칠정(七情)은 기쁨(희, 喜), 노여움(노, 怒), 슬픔(애, 哀), 두려움(구, 懼), 사랑(애, 愛), 싫어함(오, 惡), 바람(욕, 欲)의 일곱으로 묶어 나타내었다. 후대에서는 대개『중용』에서 말하는 기쁨(희, 喜), 노여움(노, 怒), 슬픔(애, 哀), 즐거움(락, 樂)을 가리킨다.

사단칠정은 조선 주자학에서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 간의 논쟁 이후로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논쟁을 거쳐 한 말에 이르기까지 조선조 주자학자로서 이 사단칠정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은 학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성리학 논쟁의 중요 쟁점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칠론에 존재론적 범주로 사용되던 이(理)와 기(氣)의 개념이 도입되고, 또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라는 개념이 함께 논의됨으로써 그 논쟁이 한층 복잡하게 되었다.[33]

충과 효가 유교적 전통에서 매우 귀중하게 간주되는 사회윤리의 기본이라고 하지만 조선 및 중국에서의 충효관과 일본에서의 그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의멸친과 멸사봉공(滅私奉公) 그리고 충효일치를 공자의 사상이자 유교사상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교의 일본적 변형을 유교사상 자체로 오인한 결과이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유학은 늘 자기에서 출발하여 제가, 치국 그리고 평천하에 이르는 동심원적 방향으로 인의(仁義)의 윤리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궁극적 지향으로 삼았다.

그런 점에서 한 국가나 한 가정에만 모든 것을 바치는 충과 효의 관념은 유교사상의 본래 정신에서 볼 때나 한국 및 중국에서 주류적 지위를 차지한

33)『한국문족문화대백과사전』「사단칠정」항목 참조.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438)

www.kci.go.kr

유교전통에서 볼 때 매우 이질적인 것이다. 충효일치 및 멸사봉공의 이념을 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비판 및 저항정신을 마비시키고 이들을 순응적인 대중들로 순치시킨 박정희 정권의 작업은 조선 유교 전통의 정치적 동원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를 매개로 하여 우리 사회에 전파된 일본 유교 전통의 지속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34]

다시 말해 우리의 유학적 전통은 충과 효, 열의 삼강오륜보다는 인간의 네 가지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情)과 일곱 가지 감정(情)을 가리키는 사단칠정에 더욱 가깝다는 것이다. 전통적 유교사상을 네트워크-공간과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변형·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사단칠정론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공간이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이 부재한 삭막한 사막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혐오와 증오, 배타가 일상화되었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기쁨(희, 喜), 노여움(노, 怒), 슬픔(애, 哀), 두려움(구, 懼), 사랑(애, 愛), 싫어함(오, 惡), 바람(욕, 欲)의 칠정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단으로 승화되어야 공동체의 가치와 윤리가 마련되고 상생과 공존의 이중구동(異中求同)이 완성된다.

이중구동은 2천300여 년 전 전국시대 송의 사상가이던 혜시(惠施)가 동중구이(同中求異:같음 속에서 다름을 추구한다)를 주장한 공손룡(公孫龍)과의 철학적 논쟁에서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자성어다. 다름 속에서 같음을 추구하는 이중구동이야말로 차이를 인정하고 "나는 맞고 너는 그르다"의 배타적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공간의 윤리적 자세이다.

초연결사회에서 인문교육의 역할은 분명하다. 인간성과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유교적 전통을 네트워크-공간에 접목시켜 상생과 공존의 휴머니즘을 발현시켜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인문교육의 진심을 규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

34) 나종석, 「전통과 근대 -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철학』 30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15, 336-337면.

www.kci.go.kr

5. 결론

기술적 미래에 대한 상상은 새로운 가치관과 실천적 지향을 통해 새로운 삶과 관계의 방식을 발명하는 문제이며, 그러한 관계의 방식에 따라 인간-생명-기술의 관계적 네트워크가 갖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이는 결국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며, 인간이나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인문학의 오랜 물음과 맞닿아있다.[35] 이 논문은 인문학의 오랜 물음을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라는 욕망의 삼각형 안에 재배치해 놓고 결국 인문학의 진심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이 인문교육의 역할에 답을 구하는 첫걸음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초연결사회의 네트워크-공간은 고정된 절대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연결에 의한 비선형적 움직임으로 생성되는 관계적 공간이다. 또한 이동을 통한 연결성과 관계성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 즉 혼종성과 물질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이 물질세계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 주체에 중심을 두던 인본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능력은 다양한 사물 및 기술(도구, 건물, 통로, 자동차, 정보기기, 사물 등)과 새로운 형태로 결합하여 그 능력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6] 바야흐로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반인반기의 트랜스휴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37] 트랜스휴먼을 위한 인문교육은 기왕의 인문교육과 결을 달리해야 한다. 인간과 기계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사물의 윤리성 정립이 필요하며, 트랜스휴먼의 인간성 회복과 새로운 윤리관 확립은 사단에 대한 재해석과 다름 속에서 같음을 추구하는 이중구동의 구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35)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견」, 「과학철학」, 『HORIZON』, 2020년 1월 23일자.(https://horizon.kias.re.kr/)

36) Urry, J. 2007. Mobilities. Polity Press, Cambridge:United Kingdom.

37) 트랜스휴먼 각자는 이타적인 지구 시민이며, 유목민인 동시에 정착민이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자기 이웃과 동등하고, 세계에 대해서 호의적이며 자기 아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자크 아탈리 저, 양영란 역, 『미래의 물결』, 위즈덤하우스, 2007, 351면)

www.kci.go.kr

‘사물의 윤리성’과 ‘상생과 공존의 이중구동’은 인문교육이 담아내야 할 진심의 일부이며, 눈 밝은 연구자들에 의해 더 많은 진심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초연결사회의 인문교육의 방향과 방법론, 내용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과제에서 다룰 것이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권순영, 「미래사회의 교육 가치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53면.

김문조, 『융합문명론: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나남, 2013.

나종석, 「전통과 근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철학』 30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15, 336-337면.

박영숙·Goertzel, B., 『인공지능 혁명 2030』, 더블북, 2016, 35면.

박지웅, 「초연결사회 이전의 기존 연결사회의 기원과 사회성격」, 『사회경제평론』 60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26면.

유권종, 「초연결사회와 유교적 진실의 재구성」, 『공자학』 36호, 한국공자학회, 2018, 180면.

윤신희 · 노시학, 「새로운 모빌리티스 개념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권 4호, 국토지리학회, 2015, 492-495면.

이광세, 「근대화, 근대성 그리고 유교」, 『철학과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7, 225면.

이남희, 『민중 만들기 : 한국 민주화 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248-385면.

이도흠, 「4차 산업혁명: 문학의 변화와 지향점」, 『한국언어문학』 6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8, 58면.

이호규, 「이동전화의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 172면.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견」, 「과학철학」, 『HORIZON』, 2020년 1월 23일자.(https://horizon.kias.re.kr/)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와 인간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2014, 88면.

전명산, 「홀롭티시즘 세대가 온다」, 『문화과학』 62호, 문화과학사, 2010, 207-208면.

www.kci.go.kr

전명산, 『국가에서 마을로』, 갈무리, 2014, 171면.
전숙경, 「초연결사회의 인간 이해와 교육의 방향성 탐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권 2호, 한독교육학회, 2016, 59면.
최민석 외,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14면.
자크 아탈리 저, 양영란 역, 『미래의 물결』, 위즈덤하우스, 2007, 351면.
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78면.

www.kci.go.kr

【Abstracts】

Post Confucianism Ideology in Network Space and the Role of Humanities Education

Lee, Yong-w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dentity of the Holocaustism generation, the human-acter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to investigate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the post-Confucian ideology of the network-space, on the premise that both the recovery and the establishment of ethics are the role of human education. It is to consider why education is needed and what role it should play in the sincerity of the humanities education.

Matter and spirit are not contradiction and opposition, but interlocking and complementary.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of a Hyper connected society is a network revolution, and the "connection" of matter and spirit embodied a new social structure. In order to grasp the new daily life and social structure brought about by the Hyper connected society in which holistic and panopticism coexist and antagonize, the identity of network-space must be clearly identified.

The Post Confucian ideology of network-space is a reverse mirroring resulting from the opposition to the Confucian ideology of everyday-space. The problem is that the dislike and hate that this reverse mirroring shows is not just a reaction to Confucian thought but extends to the network-space ethical mechanism, affecting the thinking and behavior of networked individuals. If I am convinced that my actions are correct, the mechanism for calling them is ethical. This is why the de-Confucian ideology of network-space is not just a matter of space but

www.kci.go.kr

a problem of our society as a whole. Confucian ideology and post-Confucian ideology are both ethical and moral issues. Ethics and morals are the subject of humanities education. This is why,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accelerates, humanities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and its weight should increase.

The knowledge community of the Hyper connected society has been given a new task, an effort to reinterpret, transform, and develop traditional Confucian ideas from the perspective of network-space and networked individuals. It is clear why the ethics of things should be the heart of humanities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ethics of non-human actors are just as important in the Hyper connected network-space as human- actor ethics. If either side loses ethics, the connectivity of the network can quickly destroy it. The dual drive that seeks equality in difference is the network-space ethical attitude that can overcome the exclusive dichotomy of acknowledging and correcting the difference.

The role of humanities education in a Hyper connected society is clear. We must restore humanity and humanity and combine our Confucian traditions with network-space to express humanity of coexistence and coexistence. It will be the first step to find out the seriousness of humanities education that will lead the new era.

Key Words : Humanities education, Hyper connected society, Network-space, Holisticism, Ethics of things, Post Confucianism ideology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7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